

안도 다다오 영화 감상문

생활속의 조형 (김철환)
202131003 김기호
제출일:2021/5/6 목요일



안도 다다오는 고교시절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도 하지못해서 전문적인 건축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무엇이든 창조하고 도전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교시절 돈을 벌 수 있는 복서의 길을 선택했지만 KO패를 당한 후 관두고 졸업후 건축 현장에서 나날을 보내다 우연히 스위스 출신 건축가 코르뷔지에의 도면을 보고 건축가를 꿈꾸었습니다. 오롯이 혼자서 공부를 해야 했기에 건축을보고 또 들여다 보는 일만 했습니다. 무작정 교토에서 전통 건축물을 보고 생각하고 걷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보고 걷고를 반복했습니다. 당시에 그와 현재 제 환경과 비교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외국에 가서 하루에 열몇시간 걸어다니면서 건축물을 많이 보고 무작정 많이 봤다는 태도가 정말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영화를 보는 중간중간 프로젝트 사이에 안도 다다오의 스케치가 나오는데 스케치들이 대충 굵는것같으면서 완전 못그린거같은데 나중에 설명과 함께 들으니 이해가 되는 스케치가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직접 현장에 가서 둘러보며 건축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게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닌 주변과의 조화로움, 조경을 직접 심기도 하며, 단순히 건물을 지어서 끝나는게 아닌 건물을 성장하는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 배울점이 많았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게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스미요시 주택'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노출 콘크리트 건물을 봐서 칙칙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



미요시 주택은 건물의 동서남북은 폐쇄 했지만, 중정을 만듦으로써 빛과 바람, 하늘, 비와 눈 모든 날시를 집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스미요시 주택의 빛이 들어오는 중정은 논리화 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장 말하고자 했던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생활이야 말로 주거의 본질이라 생각하셨던거 같습니다. 이처럼 "건축이란 터를 읽는 일"이라고 말하는 안도는 자연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며 건축을 합니다. 이를 노출 콘크리트 건물과 빛, 물로 실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탄생한 건축물 가운데 시작에 불과한 '빛의 교회'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십자가 형태의 창이 교회의 한쪽 벽면에 나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맞춰 태양의 빛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며 그 누구라도 자신을 향해 비치는 빛과 마주한다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안도는 건축은 끝난 후에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이상을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 언젠가 빛의 교회 십자가 창의 유리를 빼고 싶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안도의 작품은 겉으로 볼 때 아주 단순하다. 주재료가 콘크리트라서 외부

공간으로 노출하는 공법으로 건물을 만든다. 그런데 이는 치밀한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거푸집에 넣음과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매끄러운 콘크리트벽을 만들도록 마음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회색빛 건축물 속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며 가장 인상깊었던 건축도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 중 하나인 '우츠보 공원의 집'입니다. 공원과 연결되어 집 속에서도 공원의 대 자연을 느낄수 있게 한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안도는 대지를 보자마자 아이디어가 떠올라 건축주에게 땅을 사라고 했을 정도로 자신감과 확신 또한 대단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특히 계절에 따라 자연이 변하고 그에따라 집도 변화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이건물이야 말로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는 집이라 느꼈습니다. 안도는 빛과 물, 하늘, 나무등을 이 건축물에 모두 녹여냈습니다. 안도가 나무를 심는 것은 나무가 성자하는 것 또한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며 건물 또한 자연과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런 안도의 건축을 보고 세계의 많은 자선가나 투자자들이 많은 건축 의뢰를 하게되며, 미국 폴리처 예술 제단, 이탈리아 베네통의 커뮤니케이션 리서치센터, 일본 나오시마 베네세하우스, 원주의 뮤지엄산등 안도의 손 끝에서 완성한 건축물이 세

계 곳곳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시키지 못한 계획도 있습니다. 먼저 오사카의 계획들. 그는 젊었을 때 오사카 시장을 무작정 찾아가 오사카역을 중심으로 숲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언제나 거절을 당했지만 몇 번이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훗날 오사카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랠 겁니다. 벚꽃의 본고장 오사카에 나무를 심자며 시민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오사카에 떠 있던 작은 섬 나카노시마 공원은 벚꽃 천지가되었습니다. 그가 나무를 심었던 이유는 성장하는 요소도 건축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묘목을 심은 후 달라질 도시의 10년 후, 20년 후까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도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를 공원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무너진 건물의 밑에서 모두 다르지 않다며, 종교에 상관 없이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는 공간도 짓고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계획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 등도 따져야 하는 재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도는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도는 실현되지 않은 설계안이 생겨도 그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건축가의 작품을 인정하는 모습 또한 멋있었다.

안도 다다오가 중국 상해의 오페라 하우스 ‘폴리 그랜터 씨어터’를 설계하는 과정 또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컨셉이 세 개의 관을 직육면체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통과시키는 것이었는데 모형으로 만드는 것 또한 우여곡절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안도는 이런 말을 한다 “잘 될 리가 없으니까 재밌는거야” “인생 한번 인데 안되면 사과하지 뭐” 에서 그의 도전 정신이 매우 잘 느껴졌다. 결국 이 오페라하우스는 완성이 되고 이런 건물을 설계한 안도 다다오도 대단하지만 불가능할 것만 같던 건물을 시공해낸 시공자도 대단했다.



이런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들과 딱 맞아 떨어지는 ost들이 눈과 귀를 감싸주며 안도만의 건축에 대한 시각을 담은 내용들이 모두 배울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도가 영화에서 ‘청춘이 겁이 없는 시기다. 어떻게든 된다’ 라고 말한 것처럼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죽어라 공부를 해도 취업은커녕 도전조차 쉽지 않은게 요즘 청년들의 현실인데 그런 청년들에게 자신이 직접 본보기로 나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며 겁 많던 저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도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그의 대표 건축물을 구석까지 살펴볼 수 있는 영화지만 다큐멘터리 형식에 따른 의도인지, 그가 평소 일상을 촬영한 영상들을 바탕으로 다큐가 제작됐기 때문인지 낮은 화질이 영화에 대한 몰입과 그의 건축물에 대한 감상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영상의 질에 좀 더 공을 들였다면 영화의 완성도가 더 높아졌으리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도 다다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 영화를 보며 더 감동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며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건축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도 다다오의 도전정신과 부지런함을 배우고 싶어지는 영화였습니다.